

타워크레인 파업...광주·전남 건설현장 48곳 스톱

대부분 아파트 대항사업장...살아나는 건설경기에 찬물 건설노조 "안전위협 철폐해야" vs 국토부 "요구 수용 못해"

조금씩 살아나던 광주·전남 건설경기가 타워크레인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 48곳이 멈췄다. 대부분 대형 사업장인 주택건설현장이 많아 장기화될 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 파업 노동자들은 수십미터 하늘로 치솟은 타워크레인을 접거한 채 고공농성 중이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광주전남타워크레인지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광주·전남 건설현장 48곳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03대를 동시에 접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남 크레

인 작업을 하러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에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촉구하고 있다. 사용자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는 임금 7% 인상, 하계휴가 탄력 운영, 현장 휴게실 설치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3t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어 숙련되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고, 제원 기준이 없어 불법 개조된 기계가 판친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또 "일반적인 타워크레인에는 운전석이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소형 크레인 운전석 없이 무선으로 운전하게 된다"며 "현장 노동자나 주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소형 타워크레인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무인 타워크레인 관련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말까지 소형 장비의 규격 기준과 조종사 자격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건설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등 고층 건축물 골조공사의 필수 장비로, 이 장비를 통한 공정이 끝나야

내부 설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이 전체 공정의 50%를 차지해 크레인이 멈추면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최근 아파트 분양이 쏟아지는 광주의 경우 파업이 장기화되면 분양 차질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3일 회원사들에게 긴급 공문을 보냈다.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타워크레인 파업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 공동주택 입주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대체 인력이나 장비 투입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6.97 (-0.88)	↓ 금리 (국고채 3년)	1.57 (-0.01)
↑ 코스닥	702.53 (+5.30)	↑ 환율 (USD)	1182.80 (+0.70)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3개월째 오름세

돼지고기·쌀 상승, 무·배추 하락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3개월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 104.75, 전남 105.23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2015년을 기준치(100)로 잡고 있다.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올랐고, 전남은 0.7% 상승했다.

두 지역 모두 지난 3월 소비자물가(광주 104.01·전남 104.56)가 소폭 하락한 뒤 3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광주지역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1.3%, 공업제품 0.2%, 서비스 부문이 0.5% 각각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품목은 돼지고기(8.5%)와 쌀(10.2%), 수박(22.5%)이었다. 무(-44.4%)와 배추(-35.2%), 감자(-34.9%)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고등어(-



15.7%), 휴대전화료(-3.4%) 등도 하락했다.

전남지역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1.3%, 공업제품 0.2%, 서비스 부문이 0.9% 각각 상승했다.

전남지역도 쌀(12.8%)과 돼지고기(3.9%) 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고, 무(-50.4%)와 배추(-38.0%)는 떨어졌다.

한편 5월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5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출 통관 필수조건 해외규격 인증 지원

광주전남중기청, 28일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수출품목의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해외규격인증은 수출통관의 필수조건인 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에게는 품질보증의 지표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대상 인증은 CE(유럽공동체마크), NRTL(미국국가인정시험마크) 등 16개 국가의 393개 인증이며 이 중 4개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 비용의 50~70%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는다.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년 이내에 인증획득을 추진한다.

올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3차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접수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 포털 (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난 1차 접수 때 총 23개사를 선정했고, 3차 접수는 오는 8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홍 광주전남중기청장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4일 김형환(앞줄 왼쪽 다섯번째) 광주국세청장을 초청해 '기업하기 좋은 조성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기업하기 좋은 조성환경·중기 애로사항 논의

광주국세청-중기 지역본부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4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기업하기 좋은 조성환경 조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강병영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상근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중기 소상공인 밀착형 세무행정 지원 ▲농업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개정 ▲국세 수납시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우대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확대 ▲기업승계 세제지원 제도 개선 및 홍보 등 의견을 김 청장에 전달했다.

강병영 회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

인들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지방국세청의 밀착 세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형환 광주국세청장은 "세금불편 사항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은 검토해 개정 건의를 하겠다"며 맞춤형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금감원 '여름방학 금융연수 프로그램'

금감감독원이 다음 달 29일부터 8월2일까지 광주·전남·전북지역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금융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좌는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 8층에서 총 30시간 이뤄진다. 연수에서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각 권역의 특성과 주요 제도, 거래 시 유의사항 등 기본

금융 소양을 배운다. 또 금융감독원이 자체 제작한 금융교육 표준강의안과 교사용 지도서의 활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연수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19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edu)에서 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

기아차 광주공장 생산 소형 SUV 이름 '셀토스'

다음달 국내 출시

기아자동차는 다음달 광주공장에서 생산·출시되는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차명을 '셀토스(SELTOS)'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셀토스는 '스피디(Speedy)'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의 아들인 '켈토스(Celtos)'의 합성어로, 당당하고 강인한 소형 SUV를 연상시킨다. 기아차는 신차 소형 SUV가 갖춘 대범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주행성능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셀토스는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인 'SP 시그니처'의 양산 모델이다.

기아차는 셀토스의 디자인 경쟁력과 주행성능, 품질 등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차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셀토스를 이달 중 인도에서



셀토스 로고 이미지

먼저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며, 다음달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내 생산은 광주공장에서 맡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셀토스는 주요 타깃인 당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이미지와 유사하다"며 "대범한 스타일과 젊은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셀토스를 통해 자신감 있는 스타일과 라이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조선의 시인 『돌이라는 새』 출판기념회

- 일 시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5·18교육관 강당
- 후 원 | (사)서은문명란문학연구소, 시꽃피다
- 구매 문의 | 시산책사 ☎ 02-764-8722



시집 『돌이라는 새』는 조선의 시인의 새로운 시 세계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의 시를 읽는 일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이자 한국시의 숨은 보석을 만나는 행동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중략) 우리네 삶은 매개 어떤 제한에서 자유롭기 힘든 물음표 같은 속성을 갖는다. 조선의 시인은 이를 뛰어넘어 자유를 향해 열려있는 느낌표로서의 삶을 꿈꿨다.

- 권운(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

시인 조선의 ● 김만중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 시집 『당신,반칙이야』, 『어쩌면쓰라릴만큼 꽃피는 동안이다』, 『모든 빛을 소환하다』 출간

